

## UN 기후과학패널 IPCC, 13년 만에 새 의장 선출

10월 6일(화) IPCC 의장선거에서 이효성 교수 당선  
성희롱으로 물러난 라젠드라 파차우리(Rahendra Pachauri) 전 IPCC 의장 대신

출처 = Suzanne Goldenberg (2015), *The Guardian*, UN climate science panel elects first new leader in 13 years

UN 기후과학패널 IPCC(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)가 13년 만에 새 의장을 선출했다. IPCC는 지구 온난화 정도와 인류에 미치는 결과를 추적하며, 2007년 노벨상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.

10월 6일(화요일)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(Dubrovnik)에서 있었던 선거에서 이효성 IPCC 부의장이 라젠드라 파차우리(Rajendra Pachauri) 의장을 대신할 신임의장으로 선출되었다. 파차우리 전 의장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인도 뉴델리 에너지자원연구소(TERI) 소속 여성 연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의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.

파차우리 의장은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.

파차우리 전 의장은 13년간 IPCC를 이끌었다. 그 동안 IPCC는 노벨상을 받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고, IPCC 보고서에 나타난 실수를 인정한 난처한 순간도 있었다.

\*IPCC는 2007년 펴낸 4차 보고서에서 '지구온난화로 2035년까지 히말라야 빙하가 소멸될 수 있다'고 했지만, 2010년 이 예측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.

이회성 신임의장은 "IPCC는 기후변화에 관하여 최고 품질의 과학적 평가를 정책입안자에게 제공하는 데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며, 더욱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이회성(69) 신임의장은 대한민국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 대학원에서 기후변화, 에너지, 지속가능 발전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다. 세 명의 IPCC 부의장 중 한 명이었다.

의장을 포함하여 34명으로 새로 구성될 IPCC 조직은 제 6차 평가보고서(Sixth Assessment Report)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. 6차 보고서는 앞으로 5~7년 내에 완성될 것이다.

IPCC는 제 5차 평가보고서(AR5)를 2014년 11월 완료하여 발표하였다.

AR5 종합보고서(Synthesis Report)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- 기후체제에 대한 인간의 영향은 분명하다;

- 인류의 기후 교란이 심해질수록, 더 심각하고 만연하며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이 초래될 리스크가 더 커진다;
- 인류는 기후변화 억제와 보다 번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.

이회성 교수의 IPCC 의장 선출이 주목 받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2 도씨 제한을 위한 협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12 월 파리 COP 이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이다.

2 도씨는 기후변화의 재앙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선으로, IPCC 가 자발적으로 대대적인 과학적 연구를 통해 심사숙고 하여 지지했다.

IPCC 는 기후변화, 기후변화의 자연과 인류에 대한 영향, 잠재적 해결책에 대한 3 권의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을 맡고 있다.

이 보고서들은 전세계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기후과학의 기준으로 여겨지며,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증거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.

미국에서 수학한 경제학도로서 이회성 신임 의장은 5 명의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당선되었다. 벨기에 출신으로 IPCC 부의장을 역시 맡고 있는 장-파스칼 반 오펜셀레(Jean-Pascal van Ypersele)가 두 번째로 많은 표를 가져갔는데, 그는 정부에 더 많은 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다. 스탠포드 대학 크리스 필드(Chris Field), 번 대학(University of Bern)의 토마스 스토크(Thomas Stocker)는 기후과학 분야에서 알려진 전문가로서 역시 이번 의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.

IPCC 의장 선거는 190 개 국가의 비밀 투표로 이루어졌으며, 과학적 전문지식 외에도 외교적인 물밑 작업도 이루어졌다.

선거 출마 선언서에서 이회장 의장은 이전에 발표된 기후과학을 종합하고 검토하는 IPCC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.

IPCC 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기후과학 분야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함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속도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. 또한 투명성 부족이 지적되기도 했다.

일부 과학자들은 IPCC 가 정부들에게 단기적인 지침을 안내할 수 있는 목적이 보다 분명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.

이회성 의장은 IPCC 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. 하지만 개도국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후변화가 세계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해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하겠다고 말했다.

나아가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 및 산업계 리더들이 IPCC 보고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. “고용창출, 보건, 혁신 및 기술 개발, 에너지 접근과 빈곤 감소와 관련한 기후변화 이슈에 특히 관심을 쏟겠다”고 말했다.

이회성 신임의장 선출은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IPCC 지도부 교체이다.

파차우리 전 의장은 IPCC 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된 후 2008 년 단독 후보로 재임에 성공했다. 2 년 뒤 파차우리 의장은 IPCC 보고서에 드러난 실수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IPCC 위상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.

2015 년 올해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, 성추행 혐의로 조기 사퇴했다.